

도시공원 면적의 90% 시민공원으로 거듭난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시계획 9개 공원 지정시효 7월 해제 캠프장·전망대·텃밭·정원 등 시설 들어서고 산책로도 생겨 아파트는 9.7% 공간에 건설

공원일몰제에 따라 오는 7월 1일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돼 난개발 위기에 처했던 광주 9개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93%가 시민공원으로 거듭난다. <관련기사 5면>

9개 도시공원 곳곳에는 캠프장·놀이터·전망대·도시텃밭·문화복지센터 등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시설이 들어서고, 공원마다 관리사무소·화장실·주차장·산책로가 생겨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건설사들이 공원 부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들로부터 사들인 후, 부지의 90.3%는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9.7% 공간에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 광주 도시공원의 변화된 모습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 조성 계획을 잠정 수립했다. 오는 7월 이전 사업 인가·고시를 위해 현재 실시계획 수립 단계로, 계획 중인 공원 시설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에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량·마복·송암·봉산·일곡·중앙·중외·운암산·신용(운암) 등 9개 도시공원이다. 전체 공원 부지(786만8403㎡)의 90.3%인 710만8057㎡(215만평)의 소유

권은 오는 2023년 사업 완료 후 광주시로 귀속된다. 나머지 9.7% 공간은 아파트를 조성해 특례개발 사업비를 충당한다. 전국에서 일제히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비공영시설(아파트 등) 조성 면적의 평균(광주시 제외)이 21%(공원 보존율 79%)라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 공원 보존 비율(90.3%)은 타 시·도를 압도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들은 공원 부지를 사서 단순히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라 공원시설을 조성해 넘긴다. 현재 계획 중인 공원 시설은 캠프장, 전망대, 도시텃밭, 숲놀이터, 문화복지센터, 물놀이시설 등이다. 9개 도시공원마다 공원관리사무소·화장실·주차장이 들어서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산책로 58km가 새롭게 생겨난다. 9개 공원에 각각 조성될 주차장에는 차량 2300여대가 댈 수 있다. 광주시는 공원 시설 조성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업 추진 전반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9개 도시공원은 국·공유지, 사유지로 나뉘어 20년 이상 공원 부지로 묶여만 있을 뿐, 재정이 부족해 광주시가 전체 부지를 사들인 후 산책로·화장실·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 부지 소유권이 광주시로 단일화되면서 장기적인 공원 관리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될 공원과 부설시설인 산책로·놀이터·캠핑장·주차장 등은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입지 선정과정부터 꼼꼼히 살펴왔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성공

전남도와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성공한 쾌거를 이뤘다.

국제원에생산자협회(AIPH)는 4일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상반기 총회를 열고 전남도와 순천시가 공동개최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과 김병주 순천시 부시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박람회

유치추진단은 지난 2일 AIPH 총회 박람회 추진상황 발표회에 참석, 박람회 추진 방향 등을 버나드 오스트롬 AIPH 회장을 비롯한 각 국의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유치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라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연향동, 봉화산 등 도심 전역에서 개최된다.

/윤현석·김은종 기자 chad01@

광주에 13번째 확진자... 감염원인 '깜깜'



대구 코로나19 환자 광주 도착 대구지역 코로나 19 확진 환자들이 4일 오후 광주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에 도착해 병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우려 확진자 총 5621명·사망 33명

광주에서 감염원이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대규모 확산의 시작점인 '지역사회 감염'은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거주 지역에서 일상생활 중 감염되는 것을 의미한다.

4일 광주시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 남구 봉선동에 거주하는 A(57)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내려졌다. A씨는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2·3·6·8·15면>

A씨는 광주에서 발생한 13번째 확진자로, 감염 원인이 불분명해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된다. A씨는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되는 신천지 교인은 아니며, 확진자가 예배를 본 안림교회(계단교회 예장 합동) 교인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등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의 아내와 20대 아들은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A씨가 접촉한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치고 폐쇄했으며,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앞서 지난 1-2일 확진판정을 받은 광주 남구 양림동에 거주하는 B(여·48)씨와 아들 C(21)씨, A씨의 어머니인 D(83) 등 가족 3명도 감염원이 불분명한 상태. 이들 가족도 A씨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주 감염원으로 꼽히는 신천지 연관자나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성 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아들 C씨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동행자 없이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등을 여행한 점에 주목하고 있지만, 별다른 감염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13명, 전남 4명 등 총 5621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총 33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당 4·15 총선 경선 5명 후보 확정

광주 북을 이형석·광산갑 이석형 나주·화순 신정훈 무안·신안·영암 서삼석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선거구 조정 땀 재경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 경선 결과, 광주 광산 갑에선 이석형 예비후보, 나주·화순에서는 신정훈 예비후보, 무안·신안·영암에선 서삼석 예비후보,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선 김승남 예비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또 신천지 방문 논란으로 그동안 경선 결과 발표가 미뤄졌던 광주 북구에서는 이형석 예비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4차 경선 지역 13곳의 결과를 발표했다.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졌던 광주 광산 갑 경선에서는 이석형 예비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이용빈 예비후보를 물리치고 신승했다. 하지만 이용빈 예비후보 측은 이번 경선에서 이석형 예비후보가 있었다며 4일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나주·화순에서는 신정훈 예비후보가 초선 현역인 손금주 예비후보와 농협중앙회장 출신의 김병원 예비후보를 모두 제쳤다. 영암·무안·신안에서는 현역 의원인 서삼석 예비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했고,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김승남 예비후보가 한명진 예비후보의 추격을 따돌리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나주·화순과 영암·무안·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정 안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재경선 여부 등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윤열 선관위위원장은 "확정 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아마 거기에 맞게 재경선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 방문 논란으로 그동안 경선 결과 발표가 미뤄졌던 광주 북구 을은 이형석 예비후보가 전진속 예비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4일 민주당 최고위는 신천지 방문설이 경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과 함께 경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관위는 '전진속 예비후보의 신천지 방문설'이 허위 사실로 경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이형석 예비후보를 정계하고 재경선을 실시해 줄 것을 최고위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최고위에 있는 만큼 북구 을의 재경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츰츰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츰츰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리스토퍼 및 전곡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리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